

● 新築 圖書館 紹介

■ 서울시立江西圖書館

서울市立 江西圖書館(서울江西區登村洞)은 지난 82년9월22일 着工하여 8억여원의 공사비를 들여 83년7월7일 준공 개관되었다.

이 圖書館은 全坪 1,200평, 4층 건물이며 수용人員은 1,400명이다. 또한 閱覽室이 5個, 研究室이 3個, 그밖에 어린이 열람실, 참고 열람실, 간행물실, 시청각실, 휴게실 및 식당과 敬老室 등이 있다.

특히 이 도서관은 노인전용좌석 44석을 마련한 것은 특색이다. 老人 전용실에는 취미생활 건강생활등 주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각종 잡지를 비치하여 하루 30~40명의 노인들이 찾아와 독서를 즐기고 있다. 이 방에는 또 절필목이 갖추어져 노인들이 서예를 할 수 있고 바둑판, 장기판 등도 마련되어 있다.

과거에는 주로 복덕방 등에 모여 소일하던 부근 노인들이 이제는 독서를 한류 특후감을 쓰거나 얘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처음에는 노인들이 책을 잡는 것이 부질없는 일 같고 무척 서먹서먹 해 하기도 했지만 이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방은 노인들의 독서습결로 가득차 있다.

현재 「강서도서관 노인독서회」란 이름으로 60세이상 31명이 회원으로 돼 있지만 회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회원들의 학력은 무학에서부터 대학 출신까지 천차만별이다. 아직 이방에 이들의 구미에 모두 맞도록 책을 골고루 구비해 놓지는 못했지만 보고 싶은 책은 도서관 열람실에서 언제든지 빌어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 또 한글을 모르는 회원에게는 대학출신 회원이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노인들은 하루 4,5명씩 짝을 지어 교대로 「선도위원」 완장을 차고 도서관 안팎을 돌며 청소년 선도까지 맡고 있다.

承炳九 관장은 「앞으로 의태강사 초청강연, 레크레이션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노인 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韓國社會科學圖書館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과학전문도서관인 「한국 사회과학도서관」이 8월 31일 서울중로구사직동 304 舊성정여중 건물을 새로 단장하여 개관 되었다. 한국 사회과학분야의 교육·연구 및 실무에 필요한 각종 참고문헌과 마이크로폼·비디오 등 정보자료 1천5백여종을 갖춘 이 전문도서관은 데지 7백4명에 전평 1천83평 5층건물로 대강당과 6개의 대소세미나실,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개인연구실을 갖췄다.



이 도서관은 한국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해 (株)에스콰이어 李寅杓회장이 私財를 들여 7년준비 끝에 문을 열게 된 것이며 美코네티컷州 하트포드大學서 도서관부관장으로 있던 柳京子씨가 관장직을 맡았다.

정치·경제·사회·법률·행정·경영학 등 사회과학분야의 기본서지 목록·색인 및 초록·사전·인명록·안내서 및 박사논문집 등을 두루 갖추고 국내의 정기간행물 1백50여종과 참고 문헌도 수집·정리하여 연구도서관 전문연구정보센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적인 연구기관과도 유대를 맺고 정보자료를 교환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우선 美브루킹스연구소와 컨퍼런스보드의 회원으로 가입, 최신학술자료를 수집·비치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필름에 담은 미시건大學 박사논문초록과 색인(72년~현재분)은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자료이다. 또한 교육기관·기업체·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의 연구·실무자가 편히 활용할 수 있도록 開架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도서관자문위원회에서 정하는 회원제도로 운영된다.

### ■ 驛三移動圖書館

국립중앙도서관 역삼도서관(강남구 역삼동)은 지난 81년 9월 30일 현대 공공도서관의 온갖 기능을 가지는 모범 도서관으로 신축개관한 이래 창의적인 도서관 봉사활동을 적극 개발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 2월 21일에는 새로운 면모를 갖춘 自動車 移動圖書館을 개관하였다.

이 移動도서관은 3,000여책의 藏書수용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2.5톤 슈퍼타이탄 화물트럭을 특수개조하여 만들어 졌다. 또한 이 移動도서관은 구조와 외관미장을 독특하게 꾸며 일반의 흥미와 친근감을 유발하고, 국내 다른 공공도서관이 移動도서관을 만드는데 본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제작되었다.

이 移動도서관은 14개지역, 4개단체, 2개학교 모두 20개소를 매월 2회 40회 순회하면서 봉사하고 있으며 특별히 훈련된 사서가 탑승하고 있다.

역삼도서관 曹元鎬관장은, 「당초 신청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하여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아쉽고, 이동도서관 전용 자동차의 형식승인이 되어 있지않은 현재 실정에서 이러한 자동차 이동도서관을 만드는데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동도서관을 확산하는데 근본적인 저해요인이 됨으로 우리 나라도 외국과 같이 자동차 이동도서관에 대한 형식승인이 하루 빨리 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